

01 교회소식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한 '2015 만민 하계수련회'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목도하며 만민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된 시간이었다.

02 생명의 말씀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음을 활래하고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03 인터뷰

시원하고도 상쾌한 천상의 바람~

전국적 폭염에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날씨 속에 진행된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성도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04 간증

“권능의 기도로 단번에 치료됐어요!”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 은사집회에서 온갖 질병이 치료된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목도한 하나님 사랑.

만민뉴스

제699호 2015년 8월 1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시원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넘쳤어요!”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한 ‘2015 만민 하계수련회’



▲ 큰 사진은 지난 8월 초에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에 이어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올라온 성도들의 행렬. 작은 사진은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자들.

전 세계 곳곳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이는 글로벌 축제, '2015 만민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첫째 날 저녁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시 62:11)는 말씀을 본문으로 교육이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참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따른다.”며 “기사와 표적, 권능을 통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보게 될 것”이라며 “보물찾기

하듯 사랑의 증거들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어진 은사집회를 통해 펼쳐진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환자기도를 통해 암, 대상포진, 백내장, 피부병, 당뇨, 화상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됐으며, 해외에서 참석한 농아 20여 명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 간증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폭염에도 불구하

고 일정 내내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와 최적의 기온을 유지시켜 주는 기사(奇事)를 체험했다. 아름다운 원형 무지개와 십자가 구름, 성도들에게 친근히 날아와 앉는 잠자리, 밤하늘의 유성을 보면서 크신 사랑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체육대회를 통해서 언어와 민족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고, 셋째 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통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

울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소망으로 충만했다. 해외 27개국에서 참석하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로 통역된 '2015 만민 하계수련회',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며, 그 축복의 현장에 함께한 국내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증거들이 되새겨 본다(3, 4면 참조).

“마비된 다리가 풀려 잘 걸어요”

30년 전부터 요추협착증으로 인해 왼쪽 다리가 마비돼 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 첫날 교육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통회자복의 은혜가 임했고, 이어진 은사집회 시 기도를 받은 뒤에는 마비된 왼쪽 다리가 풀려 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라타 어거스틴 성도 (인도)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어요”

지난 7월 30일, 왼쪽 등에 대상포진이 생겨 잠을 못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는 3일 아침까지 통증이 지속됐지요. 그러나 수련회 참석을 위해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뿌린 뒤 통증이 사라졌고, 수련회 첫날 저녁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깨끗해졌습니다.

- 문호숙 집사 (광주만민교회)

“당뇨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당뇨 수치가 높아 매일 인슐린 35Unit을 맞아야 했지만 수련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이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도 괜찮았지요. 첫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흐린 날씨가 맑아지듯 정신과 온몸이 맑아지고 컨디션이 매우 좋았습니다.

- 빅토르 벨레스 성도 (콜롬비아)

“53년 된 연골증이 치료됐어요”

저는 출산 후 관절이 붓고 아파서 뜸 치료를 했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부릴 수도 없어서 젊은 시절부터 고통 중에 살아왔지요. 그런데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무릎이 구부러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53년 된 연골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 박정희 집사 (중국 1교구)



당회장 이재록 목사

상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니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때 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8절에 “...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게 될 복된 삶에 대한 약속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매우 기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아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하나님 창조역사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에 의해 채찍질과 온갖 고난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바라보신 것이요, 또한 예수님 자신도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서 재물과 권세도 있

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5-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상이 있으므로 천국 소망 가운데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으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3.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1)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할례해 참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마음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악이 없는 선한 마음이요 진리의 마음이며, 주님을 닮은 성결한 마음 즉 영의 마음입니다. 참마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야 참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라 인정돼 구원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롬 10:10).

만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만큼 참마음을 이루지 못했기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열매로 맺으려면 참마음이 되어야 변개치 않고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새 예루살렘과 그 곳에 예비된 상을 받기 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팔아서 참마음을 준비해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

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 불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시 18:20 ; 눅 6:35).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0-12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불같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온 이유를 영적으로 깨우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이 자체가 빛이므로 더 이상 어두움은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능히 슬픔을 이겨내며(벧전 2:19) 핍박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딤후 3:2).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벧전 4:12-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 계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심으로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인 바를 이룬 뒤에는 만족과 기쁨이 따르고 부와 명예, 권세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1.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자 열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송이를 두 사람이 멜 만큼 기름진 곳이었지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민들의 강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장차 누리게 될 복된 삶에 대한 소망도 잃은 채 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37~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부부 (러시아)



- 실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부부 (이스라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고 좋은 날씨 속에 많은 잠자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셋째 날 캠프 파이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도 은혜를 받았고, 만민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만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비숍들과 달리 일정 내내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당회장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제 아내는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폐렴과 담낭염을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고, 만민과 함께하며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 캐린 심 성도 (싱가포르)

“찬양 중에 치료받았습니다”



캠프파이어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신속히 마음의 악을 버리고 아름답고 선한 영의 열매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20년 된 소화불량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 스탠니 보고 목사 (케냐)

“바람으로 시원했던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람으로 기온을 낮춰 주셔서 덥지 않았고 최고의 날씨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체육대회 때에도 상쾌한 바람이 불어 시원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조나단 오르테가 목사 (필리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잠자리들을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날마다 기쁘고 행복했지요. 날씨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덥지 않아서 좋았고, 잠자리들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능으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매년 8월 첫째 주에 열리는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는 각종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참석한 성도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진다. 특히 수련회 첫날, 세계적인 부흥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하는 교육 및 은사집회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응답받아 간증이 넘쳐난다. 올해의 간증자 중 지면 관계상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안 들리던 귀가 들리고 유방암을 치료받았어요”

정상으로 태어났으나 네 살 때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친 후 농아가 됐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인터넷 화상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예배 시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는데 앓고 있던 유방암을 두 달 만에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시 더 잘 들려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 잇테 다할 성도 (덴마크)



“시력이 좋아지고 손목 골절을 치료받았어요”

5년 전부터 난시로 인해 작은 글씨는 가까이에서도 잘 보지 못했고,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목 골절로 인해 손목을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팔꿈치마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오곤 했지요. 그런데 당회장님 기도를 받은 뒤에는 안경 없이도 잘 보이고 오른쪽 손목과 양쪽 팔꿈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 신디아 맥밀란 성도 (호주)



“분쇄성 대퇴골 고관절을 치료받았어요”

지난 2월 19일, 2미터 높이에서 낙상해 분쇄성 대퇴골 고관절로 6개월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보행 보조기로 다녔습니다. 4개월까지는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심하게 절었지요.

수련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무릎도 꿇지 못해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 시 기도받을 때 수술 자리부터 불타는 느낌이 들었고,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 김민주 성도



“끊어진 왼쪽 어깨 힘줄을 치료받았어요”

수련회 일주일 전, 무거운 것을 들다가 왼쪽 어깨의 힘줄이 끊어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참석해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베트남어판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으며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는데, 어깨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더니 왼쪽 팔을 올려도 통증이 전혀 없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 하반탕 성도 (베트남)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욕상에 심은 고추를 따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부서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쪽 옆구리 통증이 심했고, 오른쪽 복숭아 뼈 쪽에 혹 같은 것이 튀어나왔지요.

일어설 수 없어서 양쪽에 목발을 사용했는데,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시 기도를 받을 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후끈거려서 만져보니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 방인숙 집사 (대대 1교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